

3. 직업에 따른 분류

<표 7> 직업별 국민 출국자

- 2004년도 국민 출국자를 직업별로 살펴보면, <표 7>과 같이 회사원이 3,037,773명으로 전체 출국자의 33.2%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무직 2,654,005명(29.0%), 학생 1,037,135명(11.4%), 승무원 816,682명(8.9%), 상·업·유·통 604,647명(6.6%) 순임.

직업	출국자수	구성비 (%)	지난해 대비 (%)
합계	9,139,314	100%	123.7
공공행정	119,286	1.3	127.2
문화·운동	36,475	0.4	113.8
언론·출판	15,834	0.2	107.1
상업·유통	604,647	6.6	126.0
교육	233,151	2.6	124.8
종교	49,784	0.6	116.4
학생	1,037,135	11.4	123.1
보건·복지	70,716	0.8	129.4
금융·보험	25,615	0.3	149.3
건설·건축	14,264	0.2	117.8
회사원	3,037,773	33.2	121.7
운송·통신	30,310	0.3	113.6
농·임·수산	49,644	0.5	121.9
제조·광업	3,216	0.0	142.6
서비스업	20,040	0.2	114.7
무직	2,654,005	29.0	134.1
기타	320,737	3.5	105.3
승무원	816,682	8.9	110.0

- 이를 지난해 대비 증가율 순서로 살펴보면, 금융·보험업 49.3%, 제조·광업 분야 종사자 42.6%, 무직 34.1% 순으로 증가하였으며, 2004년도 국민 출국자 수의 대폭 증가에 따라 직업별로도 전 분야에 걸쳐 증가 현상을 보였음.

4. 남녀와 연령에 따른 분류

- 2004년도 국민 출국자를 남녀로 나누어 살펴보면, <표 8>과 같이 남자가 58%인 4,830,386명이고, 여자는 42%인 3,492,246명으로, 지난해(58.8%, 여자 41.2%)보다 남자의 구성비가 0.8% 줄었음.

남녀별 출국자의 연령대 구성비에서 여자가 많이 차지하는 연령층은 10대와 20대 뿐이며 나머지 연령대는 남자의 출국자 수가 여자보다 많았고, 특히 30·40대에서는 전연도와 비슷하게 남녀 비율이 약 7 : 3으로 남자의 출국자 수가 훨씬 많음.

- 연령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30·40대 출국자가 3,973,965명으로 전체 출국자의 과반수에 가까운 47.7%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20대 17.9%, 50대 14.2% 순임.